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미래 예측과 정책적 제언 : STEEP 모형과 Scenario Writing 기법을 바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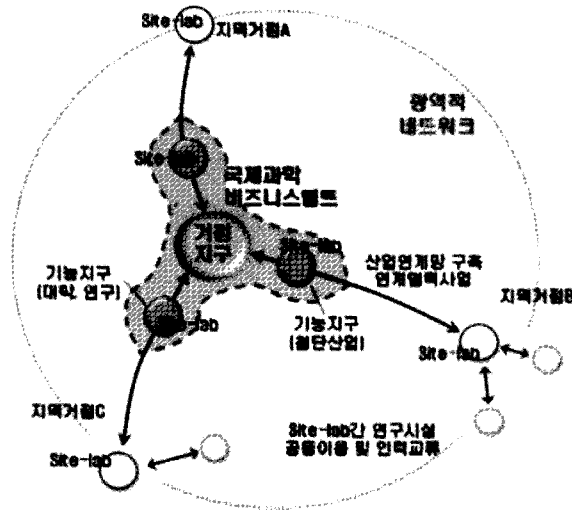
김광석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

1. 서론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5월 16일 제3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회의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대전시 대덕지구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기초 과학연구원과 과학벨트는 내년 1월 본격적인 개발 착수 계획에 들어갔고, 거점지구 대덕단지에는 과학벨트의 핵심요소인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대형실험시설인 중이온 가속기가 들어서게 되어 기초과학 연구의 허브를 구축하게 될 예정이다. 대덕단지에는 카이스트(KAI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 특화대학 캠퍼스를 설치하기로 했고, 이 시설들은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경북권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포스텍, 울산과기대 등과 함께 '연합 캠퍼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기능지구로는 청원(오송, 오창), 연기(세종시), 천안 등이 선정되었다. 산, 학, 연을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거점지구의 연구성과가 비즈니스로 연계되는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계획이다.



[그림 1]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가능지구 조망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립의 배경에는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들이 있다. 미국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보스톤(MIT대), 실리콘밸리, 독일의 드레스덴 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들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기초지식을 창출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둘째,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연구소, 셋째, 연구개발 성과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기업, 넷째,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¹⁾.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 확정된 대전광역시도 창의적인 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을 집적시켜 네트워크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전광역시가 거점지구로서의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4가지 핵심기능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광역시가 처한 당면과제들이 남아있다. 주요해결과제들은 <표 1>에 요약·정리하였다.

1) 교육과학기술부(2011), 과학강국 대한민국의 심장,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의 기폭제, 보도자료.

[표 1] 대전광역시 대덕특구의 해결과제

행정차원의 문제		컨텐츠 차원의 문제	
<p>예산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벨트 전체 예산의 거점·기능지구간의 분배문제 -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권교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확충 	<p>대전시 부지관련 재원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매입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비용 확보 - 거점지구의 부동산 투기문제 - 거점지구 거주주민의 생계 및 이주대책 	<p>공공연구 중개기관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도의 R&D사업의 추진체계 구축 -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담관리 할 기구 	<p>공공연구기관의 대규모 통합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간 대규모 통합 조정 - 기초과학연구원과 기능중복이 발생하는 출연(연)의 통합

우선 행정차원의 당면과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예산확보상의 문제가 있다. 과학벨트 전체 예산이 7년간 5조2천억원이고, 이 가운데 2조3천억원은 대전을 비롯한 거점·기능지구의 기초과학연구원·KAIST연합캠퍼스·중이온가속기 등에 지원되고, 경북권 DUP(DGIST·UNIST·POSTECH) 캠퍼스와 광주 광주과학기술원(GIST) 캠퍼스에는 각각 1조5천억원, 6천억원이 투입될 것이다. 더욱이, 2014~2017년에 무려 3조9천700억원의 재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데, 앞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 예산 계획이 실행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둘째로 대전시 부지관련 재원확보의 문제가 있다. 과학벨트 사업비(5조2천억원)에는 부지 관련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 신동(169만9천㎡)·둔곡지구(200만㎡)의 부지매입(보상)비는 3천870억원(신동 1천840억원, 둔곡 2천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기반조성비 5천740억원(신동 2천270억원, 둔곡3천47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9천6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의 막대한 재원 부담 능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것이 객관적인 견해이다. 뿐만 아니라, 거점지구의 부동산 투기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신동지구 등에는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의 투기 움직임 뚜렷하고, 개발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따른 기대감과 보상을 노린 외부인들의 전입이 성행하고 있다. 외지인들이 보상을 노리고 지목상 논에 해당하는 지역에 배나무와 매실나무 등 유실수를 식재해 놓은 것이다. 반면, 거점지구의 기존 거주주민의 생계 및 이주대책을 해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던 일부 주민들이 생계문제에 봉착하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컨텐츠 차원의 과제가 있다. 첫째, 공공연구 중개 기관(거점지구 R&D 기획·평가·관리 기구)이 설립되어 하겠다. 지역주도의 R&D사업의 추진체계 구축에 선행하여 정확한 기초자료의 확보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같은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R&D사업을 체계적으로 전담관리할 기구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공공연구기관의 대규모 통합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카이스트와 ICU의 통합, 연이은 생명연과의 통합시도 등을 시발점으로 국내 출연(연) 및 공공연구기관간 대규모 통합 조정이 가속화 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함께 기초과학연구원과 기능중복이 발생하는 출연(연)의 우선적 통폐합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본고는 대전광역시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여, 국가적 과학기술발전과 경제성장에 주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먼저 주요 변화동인을 파악하고, 미래사회예측기법 STEEP을 바탕으로 변화트렌드를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핵심변화동인을 기반으로 하여, 가장 긍정적인 1가지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시나리오 작성(Scenario Writing)을 수행할 것이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미래모습을 전망해 보고, 미래계획을 위한 기본틀을 제공해주어, 보다 체계적인 준비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2. STEEP기법을 활용한 과학벨트 거점지구의 미래모습전망

STEPP 분석은 거시적 환경분석을 하는 기법 중 하나로, 미래예측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산업 내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시적 환경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으로 미래사회예측을 위해 주요 변동요인과 변화트렌드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인 것이다. 즉, 사회(Society), 기술(Technology), 환경(Ecology), 경제(Economy), 정치(Politics)와 같은 주요분야로 구분하여, 변화트렌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선정으로 인한 대전 대덕지구의 미래모습을 전망하

는 데도 STEEP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표 2>는 대전 대덕지구의 2020년 모습을 전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 2020년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모습 전망

분야	메가트랜드	트렌드 전망
S (사회)	1. 다문화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과학자 및 가족의 이주로 다문화 형성 - 고학력자들의 지역집중 -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확대 - 해외 과학자들이 각 국가를 중심으로한 커뮤니티 활동 확대
	2. 고학력 사회	
T (기술)	3. 기초과학기술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과학기술 성과(논문, 특허 등) 증대 -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상용화의 요충지 - KAIST, 충남대, 연구기관들 및 민간기업들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환경의 조성
	4. 산학연 협동 연구	
E (경제)	5. 지식기반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집중화 - 지식기반기업의 유치 - 부동산 가열 및 투기 발생 - 산업요충지화 되어 지역내 GDP 상승 - 외국인들을 위한 상업 및 오락시설 설립 - 고용유발효과로 인한 실업률 저하
	6. 지역 GDP 상승	
E (환경)	7. 연구단지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단지 개발 및 주거환경 조성으로 인한 기존 농작지 및 산림의 축소 - 거점지구 인근의 상업시설 급증 - 도로 정비 및 지하철 개통 확대 - 지역내 TV 및 라디오의 영어방송 신설
	8. 교통개선	
P (정치)	9. 지역간 정치적갈등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스파이 등 국제 지식테러 가능성 증대 - 기존 거점지구(둔곡지구, 신동지구) 거주민들과 새로 이주하는 고학력자간의 갈등 - 외국인들과의 언어, 문화적 갈등 - 거점지구의 예산집중 등을 배경으로한 지역간의 정치적 갈등 - 거점지구 기존 거주주민들의 터전 손실로 인한 반발
	10. 기존 거주민 터전 손실	

첫째, 대전시 대덕특구는 사회적으로 다문화 형성 및 고학력 사회의 메가트랜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으로 과학자들 및 가족들의 이주로 한국적인 문화가 아닌 동서양의 다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특히, 이러한 과학자들은 주로 석박사 이상의 학력수준을 보유하고, 명문대학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고학력자들이 지역내 집중하게 되는 모습이 예상된다. 해외 과학자들의 유치를 위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머무를 안락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게 되고, 국제학교 및 국제문화공간 등을 바탕으로 영어 중심의 의사소통이

확대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영어권 국가의 아시아 타운을 연상케 할 만큼 해외 과학자들이 각 국가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확대하게 되어, 세부 지역별 독특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로서 기초과학기술 발전 및 산학연 협동 연구가 활발한 지역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기초과학기술 발전의 대표적인 성과 지표로서 논문, 특허 등이 대덕특구 내에서 집중적으로 증대 될 것이다. 기초과학기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술상용화의 요충지가 될 것이다. 즉, 거점지구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력들은 우수한 연구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높은 연구성과를 낼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상용화가 수행되는 집중지역이 될 것이다. 나아가, KAIST, 충남대, 연구기관들 및 민간 기업들의 산학연 협동연구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활발한 연구가 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 대전시 대덕특구의 모습을 전망해 볼 수 있다. 대덕특구의 경제적 메가트렌드는 지식기반경제와 지역 GDP 상승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대덕특구에는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이 집중되고, 정부는 기초과학기술을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각종 투기가 극성하게 될 수 있다. 사실상 과학벨트 효과 라고 할 만큼, 대덕지구 일대에 부동산 시장이 이미 과열된 상태이고, 언론은 과학벨트 관련보도를 통해 투기를 조장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만큼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대덕특구가 산업의 요충지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지역내 GDP가 상승할 것이고, 외국인들을 위한 상업 및 오락시설이 들어서면서, 서비스 수익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과학벨트 건립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높은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와 지역내 실업률이 극히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환경차원에서의 거점지구의 모습을 전망해 볼 필요가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 지구는 연구단지조성과 교통개선이라는 환경적 트렌드를 나타낼 것이다. 연구단지를 설립하고, 국내외 과학자들의 유치를 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농작지 및 산림이 축소되는 등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적합한 정주여건에는 주거환경 뿐 아니라, 여가 및 오락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바, 거점지구 인근의 오

락 및 상업시설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외국인을 위한 쇼핑, 여가, 문화, 체육 시설들이 들어서 기존의 모습과는 크게 변화된 형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인구가 집중되므로, 도로를 정비하고, 지하철 노선을 확대개통하게 될 것이고, 지역내 TV 및 라디오에서는 영어방송들이 신설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대전시 대덕특구의 2020년 모습은 크게 지역간 정치적 갈등이 집중되고, 기존 거주민이 터전을 손실하게 되는 부정적인 면모를 나타낼 수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기초과학기술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정보들이 집중하게 됨에 따라 산업스파이 등의 국제적 지식테러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 정치적 갈등 외에도 국내 지역적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기존 둔곡지구와 신동지구의 거주민들과 새로 이주하는 고학력자간의 갈등이나, 한국인들과 외국인들간의 언어, 문화적 갈등, 거점지구의 예산집중 등을 배경으로한 지역간의 정치적 갈등, 거점지구 기존 거주주민들의 터전 손실로 인한 반발 등이 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사회, 경제, 문화, 기술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부정적 효과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는 지역발전의 성패에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시나리오 라이팅(Scenario Writing)기법을 통한 미래전망

(1) 시나리오 틀 도출

시나리오 라이팅이란 특정 현상이 장래에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가를 밝히기 위해 여러가지 조건을 검토하여 그 상태를 예측하고 장래의 전망을 이야기식으로 묘사하는 방법론을 말한다. 원래는 군사전략의 연구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1972년에 허드슨 연구소의 허먼 칸이 「2000년」의 시나리오를 발표하여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종래의 예측과 계획이 현재 상태의 연장 형태로 되는데 비해, 시나리오 방식은 가장 비관적인 상황과 반대로 가장 낙관적인 상황을 상정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특색이다. 교육과학기술부·KISTEP의 『과학기술 미래비전 2040』, 한국정보화진흥원의 『ICT가 변화시키는 트렌드, ICT를 발전시킬 트렌드』, 미래기획위원회·KDI의 『미래트렌드변화와 대응과제, 미래비전 2040』와 같은 우수연구에서 시

나리오라이팅 기법이 적용된 바 있다.

시나리오 틀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핵심변화동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STEEP기법을 통해 미래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주요 변화동인 및 주요 트렌드를 진단함에 있어서, ‘지역의 자원 조달’ 과 ‘공공연구 중개기관(Agency)의 설립 및 역할강화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임을 확인하였다. 즉, 대전지역 R&D 자원 강화/부족에 따라 2020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모습이 크게 좌우될 수 있고, 거점지구의 R&D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공공연구 중개기관 설립 및 역할강화/부재 및 역할미비에 따라 대덕특구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R&D재원은 거점지구 설립, 과학자 유치, 정주여건 설립 및 연구기관의 운영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대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연구 중개기관도 역시,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달성 및 기술사업화 측면에서, 협동연구를 조성하고, 기술경영(기술평가 및 기술이전 등)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궁극적인 목표달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변화동인을 바탕으로 <표 3>과 같이 시나리오 틀을 2×2 매트릭스로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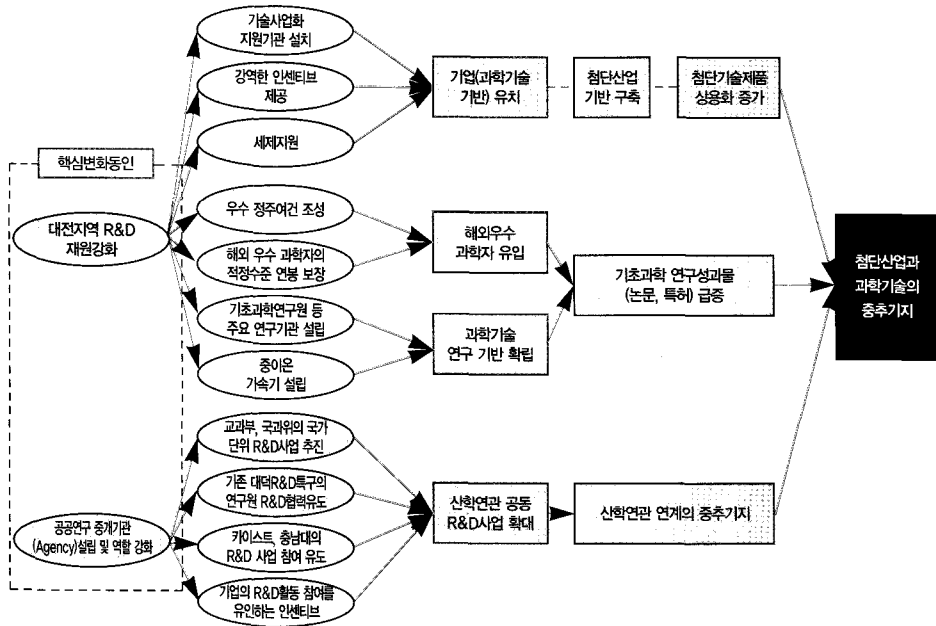
[표 3] 2대 주요동인에 따른 시나리오 틀 도출(2×2 매트릭스)

변화동인 시나리오	지역 자원	공공연구 중개기관
1*	대전지역 R&D 자원 강화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설립 및 역할강화
2	대전지역 R&D 자원 강화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부재 및 역할미비
3	대전지역 R&D 자원 부족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설립 및 역할강화
4	대전지역 R&D 자원 부족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부재 및 역할미비

Note: *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본 시나리오 1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라이팅이 수행됨

(2) 시나리오 라이팅

위의 시나리오 틀 도출 결과,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1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다.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었다. 핵심변화동인으로 대전지역의 R&D재원이 강화되고, 공공연구중개기관(Agency)이 설립되고 그 역할이 강화되었다고 가정한 결과, 각각의 동인에 따른 순차적인 결과들이 차례로 제시되었다.



[그림 2] 2020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모습의 Scenario Writing

먼저, 대전지역 R&D 재원강화에 따라 지식기반기업을 유치하고, 과학기술 연구기반을 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첫째, 과학기술 기반의 기업유치 및 첨단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거점지구 내 첨단기술제품의 상용화가 증대 될 것이다. 과학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중개기관이 설치되고, 인센티브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한 과학기술 기반 기업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해외 우수과학자의 적극적 유인을 통해 기초과학 연구성과물(논문, 특허 등)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충분한 지역재원을 통해 해외 과학자들이 만족할 만한 우수 정주여건과 적정 연봉을 보장하게 됨에 따라, 국내외 과학자들이 연구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연구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R&D 재원확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기반을 조성하여 연구성과물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우수 연구기관 및 중이온가속기의 성공적 설치를 바탕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설립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거점지구의 R&D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설립 및 역할 강화를 통해 산학연관 공동 R&D사업의 중추기지화를 달성할 것이다. 이는 공공연구 중개기관을 통해 산학연관의 공동 R&D사업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연구 중개기관은 산학연관 각 주체별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합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겠다. <표 4>는 각 주체별 방향성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4] 산학연관 협동연구를 위한 주체별 방향성

주체	주체별 방향성
산	인센티브제공을 통한 기업의 R&D 활동 참여 확대
학	카이스트, 충남대학교의 R&D 사업 참여 유도
연	기존 R&D특구의 연구원과 과학벨트내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협동연구를 통한 시너지 창출
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단위 R&D사업의 추진 유도

공공연구 중개기관은 위와 같이, 다양한 주체들이 적합한 역할을 수행하고,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뿐 아니라, 기초과학기술의 특허 출원, 등록의 원활한 관리와 협동연구 및 논문개제 실적을 높이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속에서 대전시 대덕특구는 결과적으로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중추기지’가 될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시나리오 라이팅 기법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2대 주요변화동인이 계획대로 진행될 때만이 긍정적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해, 대전시 R&D 자원 강화와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확립이 선행될 때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시는 거점지구의 성공적인 건립 및 운영을 위해 위 두 가지 차원에서의 정책적 노력을 선행해야 하는 것이다.

먼저, 대전시 R&D 자원의 강화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겠

다. 향후 10년간 각 년도별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수준을 정확히 집계하고, 그 예산의 조달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을 계획하고, 대전시 차원의 지역예산 확보방안도 동시에 계획하여야 하겠다. 공공자금 뿐만 아니라, 민간자금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국내 대기업들과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상생협력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및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공정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그 밖에도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여, 매년 집행될 수준의 예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겠다.

한편,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설립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조속한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이 이행되어야 하겠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궁극적으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결합이다.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역할이 없다면 이 두가지 요소의 결합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공공연구 중개기관의 역할이 미흡하다면, 두 요소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을 것이다. 기초과학과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결합을 위해서는 공공연구 중개기관이 설립되고, 그 역할이 강화 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공공연구 중개기관은 R&D기반기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기술보증·기술금융의 중개역할과 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원활한 기술이전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겠다. 이공계 우수인력이 연구기관으로 배치되고, 기술경영(Management of Technology)과 기술정책(Technology Policy) 분야의 전문가들이 공공연구 중개기관에 배치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행할 발판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STEEP기법을 활용한 거점지구의 미래모습에서 살펴 보았듯이, 몇몇 차원의 부정적으로 예측되는 미래모습을 개선하기위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거점지구의 부동산투기 과열이 있는 한편, 기존 거주주민들의 터전 손실문제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형성에 따른 언어 및 문화적 갈등, 고학력자와 저학력자간의 갈등, 이권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간의 갈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손해배상, 캠페인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장애요인들과 성공요인들을 분석하고, 장애요인들을 해결하고, 성공요인들을 장려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기반이 마련될 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